

ICT산업 동향 및 전망 (2024년 1분기)

- I. 반도체
- II. 디스플레이
- III. 휴대폰
- IV. 향후 전망

작성

선임연구원 이미혜 (6255-5404)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약 >

I. 반도체

2023년 4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8.3% 성장하면서 6분기만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

- (세계시장)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2.2%, 전분기 대비 29.6% 증가한 175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1.7%, 전분기 대비 24.5% 증가한 115억 달러 기록
-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수요감소, 가격하락 등으로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4분기에는 수요증가, 가격상승 등으로 반등
- (가격)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9.1% 하락, 전분기 대비 19.3% 상승한 1.57달러,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0% 하락, 전분기 대비 7.3% 상승한 4.10달러를 기록
- (수출) 반도체 수출은 10.4% 증가한 295억 달러 기록, 6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성장

II. 디스플레이

2023년 4분기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8% 성장한 326억 달러를 기록

- (세계시장) OLED 시장은 스마트폰용 패널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성장, LCD 시장은 수요둔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 성장
- (가격) LCD TV 패널 가격은 3분기까지 상승했으나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OLED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팹 가동률 조정, 대형 패널 선호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상승
- (수출)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한 64.2억 달러 기록하며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에서 탈피

III. 휴대폰

2023년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한 3.3억 대를 기록

- (세계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아이폰15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회복되면서 9분기만에 반등
- (출하량) 애플이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효과 등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도약했으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Top3 스마트폰 기업중 유일하게 역성장
- (수출)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 전분기 대비 28.7% 증가한 40억 달러 기록



IV. 향후 전망

2024년 반도체시장은 전년 대비 11.7%, 메모리반도체는 전년 대비 35.5%, 비메모리 반도체는 6.8% 성장 전망

- (메모리) D램 시장은 전년 대비 30%,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 대비 38% 성장할 전망
- 스마트폰, PC, AI서버 출하량이 각각 전년 대비 2.8%, 3.4%, 40% 증가하고 On-Device AI 확대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전망
- (비메모리) 로직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3.8%,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0.4%, 이미지센서시장은 전년 대비 7.5% 성장할 전망
- (파운드리) 파운드리 시장은 2023년에 수요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1% 역성장했으나 2024년에는 첨단공정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할 전망

2024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 대비 5.4%, OLED 시장은 전년 대비 7.9% 성장 전망

- OLED 시장은 TV 패널 수요 회복, IT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을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OLED TV 패널 시장은 TV 수요 회복,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
- IT용 OLED 패널 시장은 아이패드의 OLED 패널 탑재 등으로 전년 대비 172%,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은 전년 대비 2% 성장할 전망

2024년 차세대 AI 스마트폰 출하량은 1.7억대,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은 약 15%로 전망

- 차세대 AI 스마트폰은 On-Device 생성형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스마트폰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퀄컴의 스냅드래곤8 3세대*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이 출시됨
- * 퀄컴 최초로 생성형AI에 최적화된 AP로 최대 100억개 매개변수의 생성형AI모델을 지원
- 2024년 1월, 삼성전자는 생성형AI를 지원하는 갤럭시S24를 출시, 애플도 출시 예정인 아이폰16에 On-Device AI 기능을 탑재하면서 AI 스마트폰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



I. 반도체

(세계시장) 2023년 4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28.3% 성장하면서 6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성장

- 4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42.2%, 전분기 대비 29.6% 증가한 175억 달러, 낸드 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1.7%, 전분기 대비 24.5% 증가한 115억 달러 기록
-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수요감소, 가격하락 등으로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4분기에는 수요 증가, 반도체 감산효과 가시화¹⁾ 등에 따른 가격상승 등으로 반등
- PC 출하량은 8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나 4분기에는 소폭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임
 - * PC 출하량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1분기)△30.0 → (2분기)△16.6 → (3분기)△9.0 → (4분기)0.3(가트너)
- 스마트폰 출하량은 신모델 출시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하며 9분기만에 반등
-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생성형AI 열풍 등으로 북미 대형 클라우드의 AI서버 구매는 견조했으나 미국의 중국 제재 등으로 중국의 AI서버와 일반 서버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세
- D램 시장은 6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성장했으며 낸드플래시 시장은 회복세 지속
- 생성형 AI 열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고부가 D램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Double Data Rate 5)²⁾ 등의 수요 증가로 D램 업황의 회복세가 빠름
 - * HBM은 다수의 D램을 적층하고 실리콘관통전극(TSV, Through Silicon Via)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D램 가격 대비 약 5~7배 높음

세계 D램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트렌드포스, 옴디아.

1) SK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부터 감산, 삼성전자는 2023년 4월에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으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재고가 감축되지 못하자 양사는 7월에 추가 감산을 발표
2) DDR5는 DDR4 대비 고속(2x), 저전력 등의 장점을 보유



(가격)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주요 기업의 감소 등으로 10월부터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 4분기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9.1% 하락, 전분기 대비 19.3% 상승한 1.57달러,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0% 하락, 전분기 대비 7.3% 상승한 4.10달러를 기록
 - *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PC용),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메모리카드/USB용) 기준
- D램 가격은 2021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2023년 4분기에 반등, 낸드플래시 가격은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 3분기부터 반등
 - 낸드플래시는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2분기 △65%, 3분기 △72%를 기록하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가격인상을 추진하면서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됨
- 2024년 1분기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수요회복 등으로 전분기 대비 D램은 약 20%, 낸드플래시는 약 25% 상승할 전망
 - 메모리반도체 구매자들은 반도체 가격인상 등에 대비하여 안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구매를 확대
 - *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조원): (1분기)17.2 → (2분기)16.4 → (3분기)14.9 → (4분기)13.5
 - 모바일과 PC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수요도 회복될 전망
 - 기업용SSD(eSSD³)는 북미 클라우드의 수요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중국 클라우드와 서버 브랜드의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 전망

D램 가격

단위: 달러



낸드플래시 가격

단위: 달러



주: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PC용),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메모리카드/USB용) 고정거래 가격 기준.
자료: 트렌드포스.



(기업)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2023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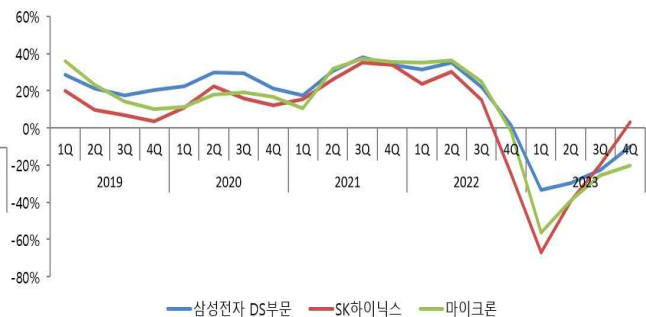
- 4분기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 이상, 전분기 대비 24% 이상 성장
- 삼성전자의 DS부문⁴⁾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 증가, 전분기 대비 32% 증가한 21.7조원을 기록, 매출은 1분기 13.7조원을 저점으로 상승 추세
- 메모리반도체 매출(매출 비중 72%)은 전년동기 대비 29%, 전분기 대비 49% 증가한 15.7조원을 기록
-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파운드리 업황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한 6.0조원을 기록
- SK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7%, 전분기 대비 25% 증가한 11.3조원을 기록, 매출은 1분기 5.1조원을 저점으로 상승 추세
- D램 매출(매출 비중 65%)은 전년동기 대비 60%, 전분기 대비 21% 증가한 7.3조원,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2%, 전분기 대비 1% 증가한 3.3조원을 기록
- * 고부가 D램인 DDR5와 HBM3 매출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각각 4배, 5배 이상 증가
-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3사중 가장 먼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되었으며 삼성전자 DS부문은 D램 사업이 4분기에 흑자전환됨
- 삼성전자 DS부문은 4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은 전분기 대비 1.6조원 감소한 2.2조원, 영업이익률은 △10%를 기록
-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상승, 재고평가손실충당금 일부 환입(4,000~5,000억원) 등으로 1년만에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 0.35조원, 영업이익률 3% 기록
- D램 사업은 2023년 1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HBM 효과 등으로 3분기부터 흑자전환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자료: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4) Device Solution으로 반도체사업을 포함

(수출) 4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한 295억 달러 기록하며 6분기 만에 전년동기 대비 성장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1.3% 증가한 167억 달러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탈피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가격상승,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
-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한 116억 달러를 기록, 5분기 연속 역성장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한 84억 달러, 아날로그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
-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9.2% 증가했으나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
- 대중국 수출(수출비중 56%)은 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32.6%, 시스템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162.0% 증가하면서 165억 달러를 기록
- 베트남 수출(수출비중 13%)은 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12.1%, 시스템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37.7% 증가하면서 38억 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물가지수(2015=100)는 2022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으나 2023년 4분기에 반등, 반도체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3분기 연속 상승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0% 상승했으나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는 6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 전분기 대비 하락폭은 축소
- * 수출물량지수: ('22.4분기)327 → ('23.1분기)279 → (2분기)353 → (3분기)420 → (4분기)423
- * 수출물가지수: ('22.4분기)68 → ('23.1분기)56 → (2분기)51 → (3분기)50 → (4분기)56

반도체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II.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2023년 4분기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8% 성장한 326억 달러를 기록

- (OLED) OLED 시장(디스플레이시장의 45%)은 스마트폰용 패널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
 -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매출비중 82%)은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6% 하락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9.6% 성장
 - TV용 패널 시장(매출비중 8%)은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9.7% 역성장
 - 코로나19 특수가 종료되면서 TV 수요가 감소하자 OLED와 LCD TV 패널 가격격차가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OLED TV 패널 출하량은 5분기 연속 연성장
- (LCD) LCD 시장은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했으나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가 지나면서 4분기 성장률은 1.0%로 둔화
 - LCD 시장은 주 수요처인 TV와 IT용 패널 수요 약화, LCD TV 패널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성장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자료: 옴디아.



(가격) LCD TV 패널 가격은 2023년 3분기까지 상승했으나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 4분기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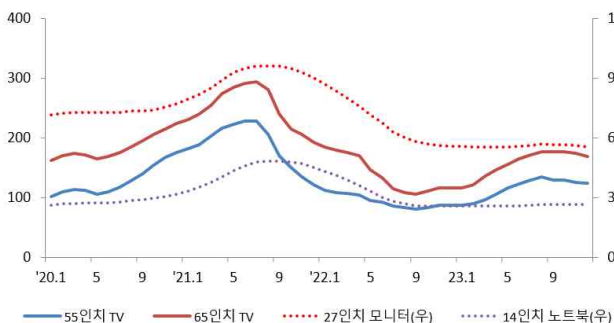
- (LCD) LCD TV 패널 가격은 주요 기업의 팹 가동률 조정 등으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25%, 13% 이상 상승했으나 4분기에는 수요 약세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
- 55인치와 65인치 UHD(Ultra High Definition, 4K 해상도) TV 패널 가격은 각각 전분기 대비 4%, 1% 하락한 126달러와 173달러를 기록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각각 47%, 52% 상승
- 주요 기업은 TV 패널 수주식 생산하는 전략(Production to order)을 통해 팹 가동률을 조정
- 2023년부터 10월부터 LCD TV 패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LCD 패권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은 팹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2024년 1분기 LCD 패널 가격 방어를 추진

* LCD TV 팹 가동률 : ('23.10월)72% → (11월)72% → (12월)68% → ('24.1월)63%

- (OLED) 4분기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9% 상승, 스마트폰 패널 가격은 6% 하락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0.4% 감소, 12.8% 상승을 기록
-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팹 가동률 조정*, 대형 패널 선호** 등으로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상승했으며 LCD TV 패널과 가격차이는 4배 수준
- * OLED TV 팹 가동률 : (9월)55% → (10월)56% → (11월)40% → (12월)39%
- ** OLED TV는 55/65인치 중심이었으나 75인치 이상 패널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모바일용 OLED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6% 하락했으나 중국 디스플레이기업들의 패널 가격 인상 노력 등으로 전분기 대비 12.8% 증가
-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은 낮은 OLED 팹 가동률 제고 등을 위해 저가 판매에 집중했으나 OLED 사업에서 영업손실이 지속되자 저가정책에서 탈피 추진
- * 주요 기업 영업이익률('23.3분기): 비전옥스(OLED)△91.6%, BOE(LCD+OLED)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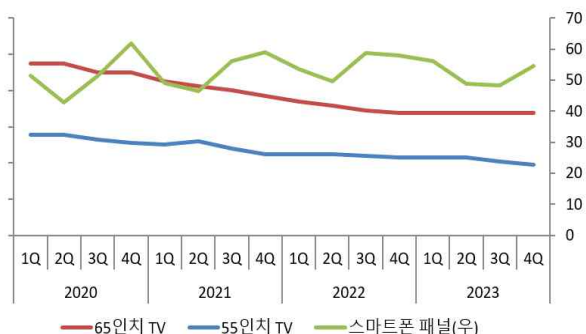
LCD 패널 가격

단위: 달러



OLED 패널 평균 판매가격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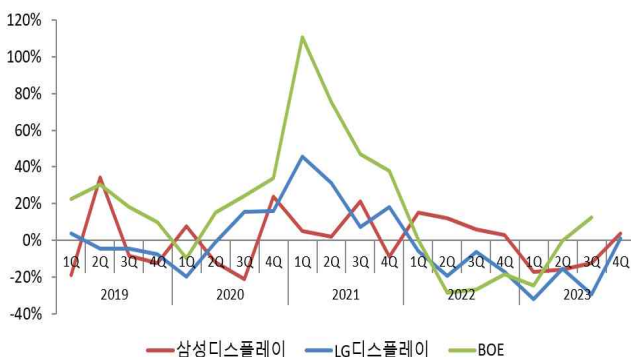
자료: 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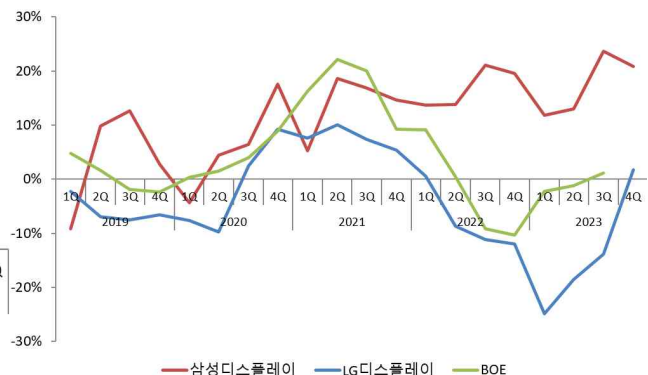
(기업) 4분기 우리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견조한 모바일용 OLED 수요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

- (삼성디스플레이)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한 9.7조원을 기록
 - 매출은 주요 고객사 신제품(아이폰15 등) 적기 대응 및 하이엔드 제품 중심 제품 Mix 운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 전분기 대비로는 18% 증가
 - 소형 패널 매출 비중은 90% 후반이며 전년동기 대비 개선된 스마트폰 수요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성장
 - *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5 총 4개 모델에 OLED 패널을 공급하며 경쟁사의 일부 모델 패널 공급 지연 등으로 공급 물량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2.0조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21%를 기록
 - 대형 패널 사업은 수요 약세가 지속되었으나 연말 성수기 TV 판매 증가 등으로 적자폭 완화
- (LG디스플레이)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 전분기 대비 55% 증가한 7.4조원을 기록, 영업손익은 7분기만에 흑자전환
 - 매출(OLED 비중 57%)은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 증가
 - *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5 4개 모델중 상위 2개 모델(프로, 프로맥스)에 패널을 공급하며, 4분기 LG디스플레이의 매출중 모바일 비중은 44%로 전년동기 대비 12%p 상승
 - LG디스플레이는 6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었으나 2023년 4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 1,317억원을 기록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BOE의 영업이익은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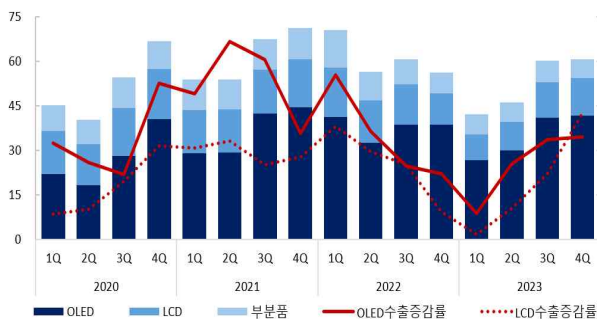


(수출)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한 64.2억 달러 기록, 5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에서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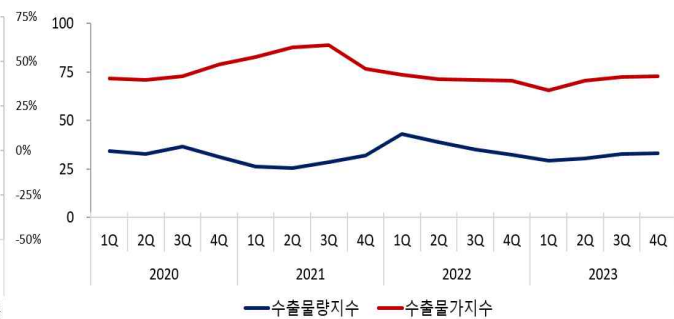
-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한 42.1억 달러,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한 13.1억 달러를 기록
 - OLED 수출은 TV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바일용 수요 등으로 증가
 - LCD 수출은 국내기업의 LCD 구조조정⁵⁾ 등에도 불구하고 IT기기·모니터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
-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4.8% 증가,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13.5% 감소
 - 베트남은 한국기업의 휴대폰·TV 해외 생산기지로 대베트남 수출(수출비중 66%)은 OLED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2.2%, LCD 수출이 113% 증가하면서 37억 달러를 기록
 - 중국 수출(수출비중 23%)은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의 성장 등으로 OLED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6.0%, LCD 수출은 4.2% 감소하면서 12.6억 달러를 기록
-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2015=100)와 수출물량 지수(2015=100)는 2023년 1분기 이후 상승세 지속
 -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는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으나 2023년 3분기 부터 상승, 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 0.5% 상승
 - *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 ('22.4분기)70.6 → ('23.1분기)65.7 → (2분기)70.6 → (3분기)72.6 → (4분기)72.9
 -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는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4분기에는 2% 상승
 - *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22.4분기)32.4 → ('23.1분기)29.3 → (2분기)30.6 → (3분기)32.8 → (4분기)33.0

디스플레이 수출액

단위: 억 달러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부분품은 편광판, BLU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5)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6월에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종료.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



Ⅲ. 휴대폰

(세계시장) 2023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한 3.3억 대를 기록하며 9분기만에 반등

- 스마트폰 출하량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아이폰15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유럽외 대부분 지역에서 회복되면서 9분기만에 반등
-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73.6백만대를 기록하며 10분기 연속 역성장에서 탈피
-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37백만대를 기록
- 미국, 동남아, 중동, 중남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8%, 4%, 24%, 4% 증가
- 유럽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 감소했으나 2021년 4분기 이후 두자릿수 감소에서 한자릿수 감소로 개선되어 향후 수요 개선 예상
- 프리미엄폰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저가폰 수요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
- 프리미엄폰(600달러 이상) 판매량 비중은 2021년 19%, 2022년 22%, 2023년 약 24%로 확대
- 프리미엄폰(600달러 이상) 시장에서는 평균판매가격 1,000달러 이상 초프리미엄폰이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체 프리미엄폰 시장 매출의 1/3을 1,000달러 이상 초프리미엄폰이 차지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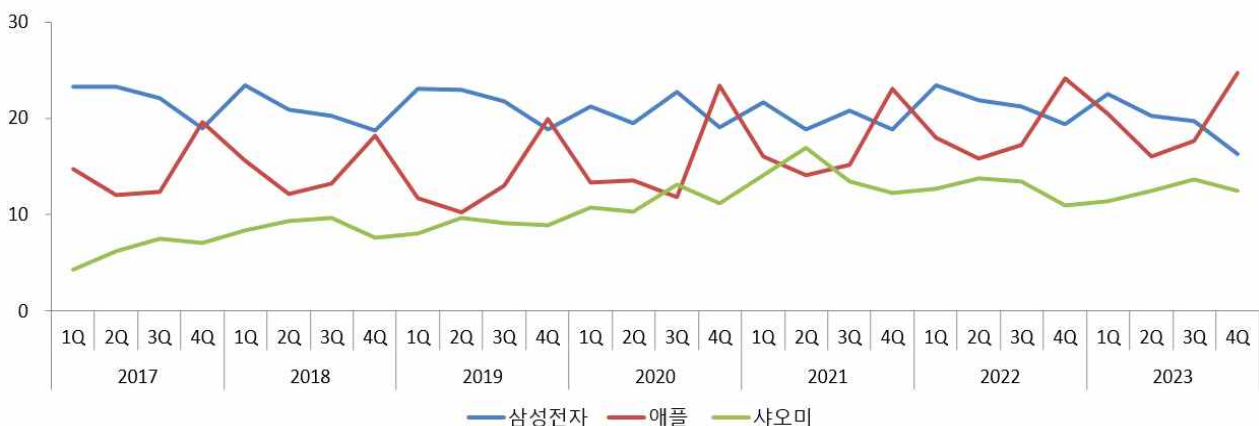


(출하량) 애플이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효과 등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도약했으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Top3 스마트폰 기업중 유일하게 역성장

- 삼성전자의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 시장점유율은 16.3%를 기록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신모델 출시 효과 둔화, 중저가폰 시장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하면서 Top 3 스마트폰 기업중 유일하게 역성장
 - 삼성전자는 1분기에 갤럭시S, 3분기에 갤럭시Z 시리즈를 공개하여 4분기는 삼성전자에게 계절적 비수기에 해당, 갤럭시S24는 2024년 1월말 공개하며 대기 수요 발생
-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 시장점유율은 24.7%를 기록
 - 아이폰은 중남미, 서유럽,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판매호조를 보였으며, 미중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로 도약(중국 시장점유율은 20%)
 - 아이폰은 매년 3분기말에 신모델을 출시하여 4분기에는 애플이 시장점유율 1위로 도약해왔음
- 2022년 4분기에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의 중국 공장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영향 등으로 2023년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
-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 시장점유율은 12.5%를 기록
 - 샤오미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으로 Top 5 기업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신흥국(인도네시아 등) 등에서 선전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

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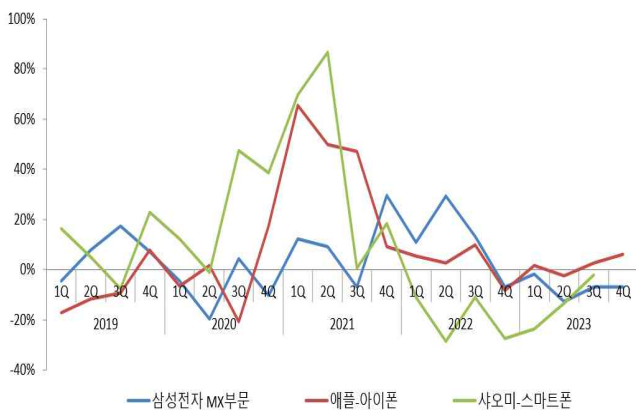
주: 출하량 기준.
자료: 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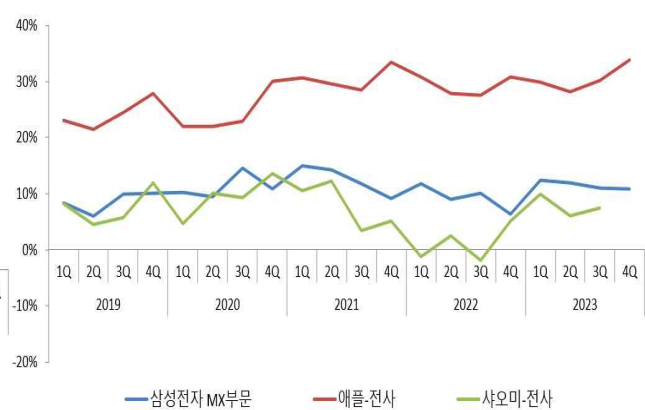
(매출·수익성) 애플은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으며 삼성전자는 성장성은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

- 삼성전자 MX6)/네트워크사업부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 감소, 영업이익은 비용관리, 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
-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으나 영업이익은 자원 효율화 등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1% 기록
- 애플의 4분기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6%, 전사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
- 아이폰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초고가 모델 중심의 사업구조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애플의 전사 영업이익률은 프리미엄폰 시장의 높은 지배력과 서비스 사업 등으로 34%를 기록
 - 전사 매출중 서비스 매출 비중은 19%이며 애플케어(휴대폰 보험), 애플tv, 애플뮤직 등의 서비스를 판매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 애플과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
자료: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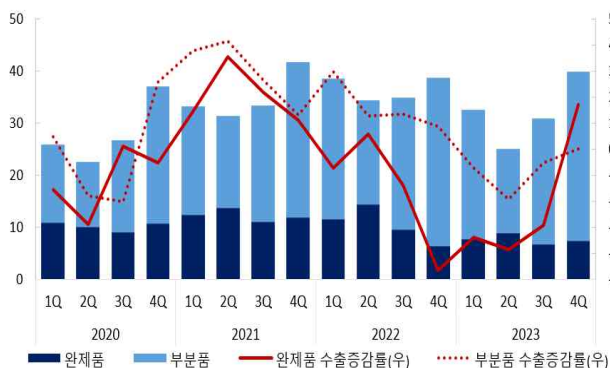


(수출) 4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 전분기 대비 28.7% 증가한 40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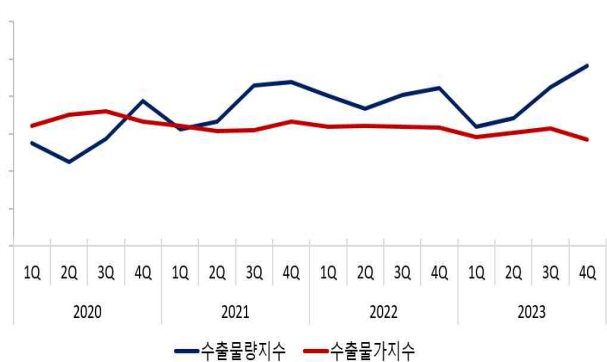
- 완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5%, 부분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
 - 완제품 수출은 북미, 유럽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7.4억 달러를 기록
 - *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 36.4%, 독일 17.4%, 영국 11.1%, 프랑스 7.6% 순
 - 부분품 수출은 아이폰15 출시 등으로 카메라 모듈 등 부품 수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33억 달러를 기록
- 대중국(홍콩 포함)과 대베트남 수출은 양호, 대미 수출은 건조한 실적을 기록
 - 대중국 수출은 부분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한 24.5억 달러를 기록
 - 대베트남 수출은 2024년 1월말에 출시되는 갤럭시S24 등의 제조를 위한 부분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5.4억 달러를 기록
 - 대미국 수출은 완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25%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
- 휴대폰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14%, 전분기 대비 14% 증가, 수출물가지수(2015=100)는 전년동기 대비 10%, 전분기 대비 9% 감소
 - * 수출물량지수: ('22.4분기)105 → ('23.1분기)80 → (2분기)85 → (3분기)106 → (4분기)120
 - * 수출물가지수: ('22.4분기)79 → ('23.1분기)73 → (2분기)76 → (3분기)78 → (4분기)71

휴대폰 수출액

단위: 억 달러



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IV. 향후 전망

2024년 반도체시장은 전년 대비 11.7%, 메모리반도체는 전년 대비 35.5%, 비메모리 반도체는 6.8% 성장 전망⁷⁾

- (메모리) D램 시장은 전년 대비 30%,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 대비 38% 성장할 전망
 - 스마트폰, PC, AI서버 출하량이 각각 전년 대비 2.8%, 3.4%, 40% 증가하고 On-Device AI* 확대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전망
 - 서버 출하량중 AI 서버 비중은 12%로 예상(트렌드포스)
 - *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기에서 AI 모델을 구동해 빠른 속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장점 보유
 - 반도체기업이 보수적 생산기조 유지시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4분기까지 상승할 전망
 - * D램 시장에서 HBM 비중은 2023년 9%에서 2024년 18%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 (비메모리) 로직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3.8%,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은 10.4%, 이미지 센서시장은 전년 대비 7.5% 성장할 전망
 - 로직 반도체에는 CPU, GPU 등이 포함되며 2023년에는 생성형AI 열풍 등으로 GPU 공급이 부족했으나 2024년부터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 개발 등으로 공급부족이 완화될 전망
- (파운드리) 파운드리 시장은 2023년에 수요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1% 역성장, 2024년에는 첨단공정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할 전망⁸⁾
 - * 파운드리는 주로 시스템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며 반도체 공정난이도 상승, 팹 투자비 증가 등으로 위탁생산이 증가하는 추세
 - 첨단공정 수요는 증가하나 성숙공정은 중국기업의 생산능력 확대, 가격인하 등으로 첨단공정 대비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파운드리는 2023년부터 가격을 인하했으며 대만, 한국기업의 가격인하가 이어짐
 -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능력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팹 가동률이 낮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팹 가동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
 - TSMC는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할 것으로 자체 전망하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024년 1분기에 5~15% 가격인하를 통해 고객사 확대 등을 추진
 - *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전망: TSMC ('23)59% → ('24F)62%, 삼성전자 ('23)11% → ('24F)10%⁹⁾

7) 옴디아

8) 가트너

9) 트렌드포스



2024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 대비 5.4%, OLED 시장은 전년 대비 7.9% 성장 전망

- OLED 시장은 TV 패널 수요 회복, IT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률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TV) OLED TV 패널 시장은 TV 수요 회복,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할 전망
 - OLED TV 패널 출하량은 2023년에는 코로나19 특수 등이 사라지면서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 유로2024 개최 등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
- (IT) 태블릿과 노트북용 OLED 패널 시장은 아이패드의 OLED 패널 탑재 등으로 전년 대비 172% 성장할 전망
 - IT 트렌드를 선도하는 애플이 2024년 처음으로 아이패드에 OLED 패널 탑재를 시작하면서 IT용 OLED 패널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스마트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은 전년 대비 2% 성장할 전망
 -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은 2023년에 저가공세를 펼쳐 시장점유율을 확대했으나 수익성이 악화되자 2023년 하반기부터 패널 가격을 인상, 2024년 상반기에도 패널 가격인상 기조가 유지될 전망
-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매출 비중은 35%, OLED의 수요처별 비중은 스마트폰 77%, TV 8%, IT용 패널 5% 순으로 전망

2024년 차세대 AI 스마트폰 출하량은 1.7억대,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은 약 15%로 전망

- 시장조사기관 IDC는 차세대 AI 스마트폰을 30TOPS¹⁰⁾ 이상의 NPU¹¹⁾를 활용해 On-Device 생성형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SoC¹²⁾을 탑재한 기기로 정의
- 기존에 NPU를 탑재한 스마트폰(30TOPS 이하)이 출시되었지만 생성형AI 기능을 갖춘 최신 스마트폰을 설명하기 위해 AI 스마트폰의 개념이 대두됨
 - 삼성전자의 2020년 플래그십 AP(Application Processor) 엑시노스 990은 NPU를 탑재했으며 성능은 10TOPs, 사진 촬영시 자동으로 초점 조정 등을 지원
- 2023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AI 스마트폰용 AP인 퀄컴의 스냅드래곤8 3세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300,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400 등이 출시됨
 - 스냅드래곤8 3세대는 퀄컴 최초로 생성형AI에 최적화된 AP로 100억개 매개변수의 생성형AI 모델을 지원하며 퀄컴이 제공하는 Meta의 LLama2를 사용하거나 타 AI 모델을 넣을 수 있음

10) Tera Operations Per Second. 1초에 1조번의 연산을 처리

11) 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으로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12) System-on-Chip. 스마트폰이 구동되기 위한 핵심 부품(CPU, GPU, 모뎀 등)을 한데 모은 칩



- 2024년 1월, 삼성전자는 생성형AI를 지원하는 갤럭시S24를 출시, 애플도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16에 On-Device AI 기능을 탑재하면서 AI 스마트폰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
- 갤럭시S24는 퀄컴의 스냅드래곤8 3세대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AP를 탑재했으며, 실시간 통화 통역, 문자 메시지 번역 등의 기능을 제공
-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AI모델 가우스, 구글의 Gemini 등 여러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합친 LLM인 갤럭시AI를 통해 해당 기능을 구현
- 샤오미는 AI 기능이 강화된 샤오미14 울트라를 출시, 중국 오포는 AI센터를 설립하며 AI 역량 강화를 추진